

## 다산포럼

## 창조는 표현의 자유를 먹고 산다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물 흐르듯 묵은 해가 새해로 흘러간다. 그렇지만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 13년간 한 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를 어른조사로 선정해 온 「교수신문」에서는 올해를 「도행역시」(倒行逆施)로 묘사했다.

초나라 왕에게 부친을 살해당한 오자서가 친구인 신포서와 나누는 대화를 소개하는 「사기」가 출처이다. 자연스러운 물 흐름 같은 순리를 거스르는 퇴행의 서글픔이 느껴지는 말이다.

“역시, 교수들은 떠들어야!” 하며 웃고 넘기면서 서글픈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억압적인 여려 이미지들이 영화에서의 오버랩처럼 동시에 밭적으로

겹쳐진 채 떠오른다. 표현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도처에서 발견되는 난처한 상황들이 그렇다.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만 되새겨 봄도 자유로운 흐름의 역류가 강하게 전해온다.

일부 노래방 기계에서는 그동안 자유롭게 불러온 어떤 노래들에 대해 “국방부 요청으로 삭제된 곡입니다. 선곡하지 마세요”라는 친절한 금지 소개가 나온다는 소식이 등장했다. 심지어 「아리랑」처럼 우리 모두 공유하는 전통적 노래에도 이런 문제가 뜬다니 놀라운 일이다. 군부대에 납품했던 노래방 기계가 민간에 흘러나와 벌어진 불상사로 넘어가기엔 어리둥절한 역류의 충격파가 크다.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는 유력 문예지들을 불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도 개인적 일탈로 웃고 넘기기엔 역류의 조짐이 전해온다. 이 문제지에서 정치적 이유로 한 작가의 소설 연재를 거부해 논란이 벌어지자 편집책임자의 사과와 사퇴가 있었다. 바로 이 문제지에서 주최하는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소설가와 평론가, 두 작가가 수상을 반납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표현의 자유를 먹고 사는 예술가들의 투혼이 격정적인 몸짓으로 느껴지기 조차 한다.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다”라고 한 전설적인 시인 김수영이 오랫동안 투고해온 문예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 퇴행의 역압적 효과가 이런 것이거나 하는 한숨마저 나온다.

비로 이 무렵 뜨거운 화제를 물고온 영화 「변호인」은 개봉 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영화를 보지 않고 평점주기가 가능한 곳에서 10점 만점에 1점을 주는 기록이 감지됐다. 그러다가 실제 관람자들이 평점을 매기면서 이 영화는 9점대로 치솟는 고풍진을 벌이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어서었던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아바타」의 첫 주 대비 흥행기록을 넘어설 정도로 이 영화는 관객의 감흥을 보여주고 있다. 기이하게 보이지만 영화를 안 보고도 평점을 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두고 개봉 전후 평점이 큰 격차를 보이며 수직 상승화 반전이 발생한 것이다.

영화를 안 보고도 개봉 이전에 평점주기의 자유가 보장되는 걸 보면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변호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법정드라마이다. 올해 「설국열차」와 「관상」에 이어 아웃사이더의 매력을 한껏 재현해낸 송강호가 맡은 송 변호사 캐릭터의 반전이 영화 관람의 묘미이다. 지난하고, 빽 없고 학벌 없는 세무변호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공방 장면들은 법의 정의와 반인권적 권력의 대항관계를 극적으로 과고든다.

이 영화 개봉 즈음 발표된 영화입장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관객 수 2억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해 1인당 한국인 영화 관람은 4.1회로 미국, 인도, 중국, 프랑스와 더불어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5대 국가 안에 든 것이다. 커져가는 영화산업의 파이에서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다. 「변호인」의 창작 자유, 평점 주기 자유는 많은 관객의 호응과 함께 거둔 성과이다.

창조경제를 국정 아젠다로 내건 정부시책에서 표현의 자유는 본질이다. 표현의 자유, 특히 예술 표현의 자유가 겹칠 때 당하는 일이 새해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억압에 대한 대응은 예술”이라는 버나드 쇼의 지적처럼 표현의 자유는 창조경제의 대응으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로 공명한다.

## 법조칼럼

## 꽉 막힌 도로에서

김현우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지난 2월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나 광주의 시민이 된 지 벌써 1년이 되어 간다. 전임지였던 인천에서 활동을 마친 뒤 당장 입을 옷과 세면도구 등 몇 가지 짐만 차에 싣고 고속도로를 내려올 때만 해도 ‘광주’라고 하면 ‘5·18 민주화운동’과 ‘맛있는 한정식’ 정도밖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상추튀김’과 ‘깻잎치킨’의 맛을 알게 됐다. 또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아내보다도 충장로 골목골목의 맛집과 그곳을 갈 때는 어떤 길로 가서 어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편리한지 알 정도로 주민등록 공부상으로만

이 아닌 실제 생활밀착형 광주 시민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런데 광주에 살면서 아직까지 잘 적응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의외로 차가 많이 막힌다는 것이다. 처음 광주에 왔을 때만 해도 도로가 넓찍하게 참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어지간한 간선도로는 보통 왕복 6차로나 그 이상이었고, 동네 어귀의 도로들도 왕복 4차로인 곳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출퇴근길이 만만치 않았다. 약 5km 남짓한 출근길이 무려 1시간이나 걸리기도 하는 등도로 사정에 비하면 이상 하리만큼 차가 많이 밀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떤 때는 꽉 막힌 도로가 마치 금요일 저녁의 서울 도심 한복판을 운전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그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앞의 브레이크 등이 깨지기만 기다리던 눈에 어느 날 도로변 가장 바깥쪽 차로에 줄을 지어선 차량의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것, 즉 교통 정체로 멈춰 선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란 것이 보

이기 시작했다. 그랬다.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으로 인하여 1개 차선은 사실상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복목현상이 생기고 있었고, 특히 교차로에서는 코너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직진하려는 차량의 진로를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신호주기와 맞물려 정체가 길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지 교통 정체로 인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 문제로만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행을 어렵게 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는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출동한 소방차들은 아파트 입구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 현장 도착이 늦어졌고,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불을 끄기 시작했을 때 이미 화재 현장은 더 이상 불에 탈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타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가 광주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등 법전을 펴놓고 공부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기초 질서이다. 물론 불가피하게 도로변 주·정차를 해야 할 때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주변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는 없을까. 차량을 세운 뒤 조금은 멀더라도, 도로에 세워 둔 차량으로 인하여 좁아진 도로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달리는 사람은 다음 아닌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며 같은 광주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위한 배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이제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새해가 밝아온다.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흉길동처럼, 차로 하나를 무단으로 점거한 차량으로 인하여 왕복 4차로를 4차로로 부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드물어지길, 그래서 새해에는 시원하게 뚫리는 길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길 꿈꿔본다.

## 기고

## 꿈 다리 놓기

박표진  
前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광주대 교수

우리 삶에서 꿈은 곧 행복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스치는 과정으로 여기기에 꿈꾸는 자는 행복하다. 꿈은 여타의 둘째과는 다른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너무도 편리하고 윤락해졌다. 중병이 아니면 간단한 약과 치료만으로도 완치될 수 있으며,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꿈을 실현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욱 고단해졌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는 우리들의 삶이 과거보다 더 어려워져서 아니라 꿈을 잊어버렸고 자연스레 행복도 남의 세상처럼 여겨지고 만 것이다. 꿈이 없는 삶은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꿈을 위협받고 있다. 입시의 틀 속에서 어른보다 더 현실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게임 등 조금만 눈을 둘려도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지척에서 끌려를 놓고 있다. 정작 깊이 있는 독서나 사색은 찾아보기 힘들며 무엇보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경우도 하다하다. 결국 이런 아이들에게는 꿈이 없으며 꿈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는 미래도 없다.

교육의 키워드는 「꿈」이다. 꿈은 만들어지며 가로쳐지고 키워진다. 아이들의 꿈은 교육으로 다양한 꿈을 꾸기 위해서 아이의 바람, 특기와 소질 등으로 꽉 빠워진 꿈들이 무력 무력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꿈을 꾸기 위해 다른 꿈을 품을 수 있게 해서 꿈 너머의

꿈으로 행복과 행복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꿈이 가득하고 그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이 있는 아이의 미래는 행복하고 밝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많은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잠재적 능력과 소질, 특기, 적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꿈이 많을수록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마치 많은 옷이 전시된 곳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는 것과 같다. 선생님은 아이가 가장 어울리는 옷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즉 선생님이 경험한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함께하는 여행과 체험, 독서와 질문으로 꿈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선 꿈을 그려낼 수 있다.

꿈은 개척하는 것이다. 더 많은 경험과 사고로 먼저 찾아내고 많이 만들어낼 때 그것을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학교는 교과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청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

이 다양한 꿈을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꿈과 꿈을 연결하여야 한다. 수많은 꿈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거나 어울리는 꿈을 분류한 후에 연결고리를 이어간다면 꿈 너머의 꿈을 찾는 것이 된다. 꿈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고, 꿈을 이루고 나서야 비로소 꿀 수 있는 꿈이 있다. 꿈 다리 놓기는 서로 관련이 깊은 꿈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꿈이 겹치고 연결된 꿈은 행복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꿈 다리 놓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어린 시절 꾸었던 꿈보다 더 많은 꿈과 큰 꿈을 가졌던 적은 없었기에 아이들에게 꿈은 삶에 가장 큰 행복이고 특권일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의 꿈에 달려 있다.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외면하는 순간 미래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으로 아이들이 꿈을 꾸 수 있는 대로의 꿈을 꾸기 하고, 꿈 다리 놓기를 하게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역할과 사명이 여기에 있다.

나 더러운 휴지를 그대로 책 속에 끼워 넣어 반납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책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둑을 부분이 눈앞에 오도록 꽂아주지 않고 책장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꽂는 사람들은 그나마 봐줄 만할 정도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나 생각한다. 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꽂고루 이용할 책이 고장소임을 알았으면 한다. 아무리 바쁜 일

이 있어도 책 반납일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된 마음으로 도서관을 아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늦게 반납하는 일수만큼 그 책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애를 태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질서를 지키고 규정을 그만 허용하는 사람이 고장나거나 꽂고루 이용할 책이 조그만 가지면 될 것이다.

▲김성자·광주시 서구 농성동

## 공공도서관 에티켓도 모르는 사람들 반성합시다

방학을 맞아 수업료를 벌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가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평소에 학교에 다니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할 때는 별로 못 느꼈던 건데 직접 도서관에서 일을 해보니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까지 공공 물건에 대한 사랑과 아끼고 하느라 의식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참 많았다.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되는 일일에도 보던 책을 아무렇게나 놔두고 가는 사람, 책을 빌려서 쳐 음과 같이 반납해야 하는데도 책 내용 중간 줄을 많이 끊어 가는 사람, 책 일부를 훼손 시켜서 반납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꽂이

## 社說

## 전남 섬지역 급수난 최악의 상황이라니

수원지 저수율이 9.5%~29.2%에 불과해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번 식수공급 위기는 일차적으로 강수량 부족 때문이다. 도내 남해안 지역 강우량은 10월과 11월에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으나 12월에는 3~4mm 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다.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제 식수 부족은 연중행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전남도는 소방차를 이용한 비상급수

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조를 받아 생수 지원, 마을별 소독약품 배부 등 긴급조치에 나섰으나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완도 금일읍을 비롯한 넓도, 청간도, 보길도 등 4개 읍·면지역도 생활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 자살형 사립고(자사고)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3배나 비싼 교육비에도 지원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일반 고교에 대비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지난해 1.11대 1보다 2배 이상 경쟁률이 상승해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역시 자사고인 송덕고는 내년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일반전형에서 2.2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광역 단위 자사고 중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대 1보다 2배 이상 경쟁률이 상승해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고교들이 여전히 측면에서 여전히 좋은 자사고를 앞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하지만, 자사고 열기로 그저 남의 일로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고교에 진학해 올리고 있다.

물론, 일반 고교에서도 이처럼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한 이유는 일반 고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데 있다.

자사고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과운영과 이론과 상위그룹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 無等鼓

지난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ABC 방송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다. “우리를 구해줘요. 우리에게 망토를 두른 영웅이 필요해요.” 그레그 수르 경찰서장이 소환한 인물은 어린이 배트맨 ‘배트키드(Bat kid)’. 북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3살 소년 마일스 스콧이었다.

이날 이벤트는 난치병 어린이를 돋는 메이크리웨이시 재단이 스콧을 위해 마련했다. 생후 18개월 때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투병 중인 스콧의 소원은 배트맨이 되는 것이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시 당국, 경찰, 경찰, 언론, 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됐다.

스콧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트키드라 부르며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달라고 하자 즉각 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시민이 빌려준 배트맨 문양이 새겨진 탑 보르기니 배트 모빌을 타고 가짜 폭탄과 함께 뛰어 있다면 여성은 구경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방본부는 현민군이 꿈을 짓지 않도록 멘토가 돼주기로 했다.

2014년에는 우리를 마음을 덥히는 훈훈한 이야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김미문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記者周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